

자기소개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1 년 앞으로 선생님이 되면 딱 좋겠다!



"년 앞으로 선생님이 되면 딱 좋겠다."
 "왜냐하면 년 상냥하고 친절하며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뻐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심성이 바른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거야!"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장래희망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었고, 생활 속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과전담교사가 있어 음악, 영어, 체육 등의 교과는 전담하여 지도해 주지만 그 시절은 전 교과목을 담임선생님이 지도하였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성격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부끄럼을 많이 타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 등 활동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고, 움직임을 표현하는 신체활동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운동회 구경을 오시면 늘 속상해하시는 이유가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우리 딸은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데 누굴 닮아서 저렇게 체육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서로 탓을 하며 다투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엔 누구나 그랬겠지만 특히 순진하고 마음이 여렸던 저는 선생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활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좌우한다. 이 말은 머리가 우수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너희는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늘 선생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그래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으니 내가 체육을 못하는 것도 노력이 부족해서 일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달리기 연습을 했고, 철봉에 매달려서 한바퀴 도는 것이 너무도 무서웠지만 될 때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운동회에 오신 부모님께서 달리기에서 3등을 하여 손목에 찍힌 도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대견스러워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손목에 찍힌 도장이 지워질까봐 한동안 손목은 씻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택에 저에겐 새로운 별명이 한가지 늘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별명으로 '악바리'라는 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라면서 꿈이 몇번씩 바뀌기도 하지만 저는 단 한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장래희망이 뭐니까 물어보면 망설임없이 선생님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었습니다. 저는 대전의 명문 ○○여고를 졸업하였습니다. 공부도 잘하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서울로 진학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이를 뿌리치고 ○○교육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드디어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감도 되었습니다. 교감이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는 낯선 사람에게 저를 가리키며 "애가 내 딸인데 교감이라 우."라고 자랑을 하시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지금은 교장 언제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선생님의 길을 돌아보면 가슴 벅차고 꿈만 같습니다. 선생님의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흐뭇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12학급의 면소재지 소규모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학년이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무부장님이 3학년 1반을 맡고 계셨고 저는 3학년 2반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학교 근무하고 일주일도 채 못되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무부장님 보조교사로서 학교업무 등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속뜻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일이 낯설어서 그 일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주어진 일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알게 되면서 일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교무부장님께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것이 어설피 저를 맡처럼 챙겨주셨기에 당돌하게 비효율적인 업무의 문제 개선을 건의하였고 무엇보다 학생 교육 활동이 우선인데 이를 침해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 시절에 통용되지 않을 태도로 용감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모든 일이 학생 교육 관련 일이지만 특히 관련성이 큰일은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합창반, 기악합주부, 무용대회, 학교 간 응원전까지 학생으로 조직된 동아리활동 관련은 온통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무용대회 출전할 때는 무용을 잘하지 못하는 제가 도저히 학생지도를 한다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에 읍내에 있는 무용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면서 지도하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때 항상 창의적인 발상을 염두하여 기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기악합주부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악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동원하여 합주하였고, 무용대회 출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어리더를 조직하여 운동회 행사 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 동아리는 단발성, 일회성으로 활동을 그치지 않고 학교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동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조를 편성하여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상담활동 및 학력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희망자를 모집하여 인근 산을 등반하기도 하고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업 중에 배웠던 장소를 탐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 중에 한가지는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진달래꽃을 따러 갔던 일입니다. 여자아이들과 함께 보자기를 허리에 두르고 남자아이들은 앞서가면서 긴 막대로 풀 속에 있을 해충을 쫓아주면서 진달래꽃을 따러 갔던 추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리고 6학년 담임을 하면서 6교시 마지막 실과시간에 짝궁과 함께 서로 도와주며 손톱에 봉숭아 꽃물들이던 정겨운 활동이 그립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전부였던 그 시절, 고등학교 친구들이 연락이 뜸하다며 찾아와서 새까맣게 그을린 나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지만 나는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학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첫 순간부터 학생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학교 현장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학교폭력이란 단어가 원망스럽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입니다. 그 시절에도 어찌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랑하고 이해하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화는 유산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계수초의 교육 가족이 된다면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31년 동안 교사로 용인, 부천, 파주, 이곳 시흥에서 재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수업이 생명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교사들은 예전에 비해 수업의 탈사유화를 내세우며 수업을 많이 개방하는 추세지만 그 시절엔 가장 부담스럽고 꺼려하는 것이 수업 공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수업 공개입니다. 아마 교사이므로 일반인과 확연히 차별된 전문적이고 우수한 수업 진행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년을 대표하는 수업, 학교를 대표하는 수업은 항상 자원하였습니다. 새학년을 조직할 때 인기투표를 한다면 아마 제가 가장 인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개수업은 자청해서 늘 제가 한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나온 무모한 용기인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수업 구상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면서 공부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공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연구한 수업주제는 바로 ‘놀다 보니 저절로 익혀지는 공부’였습니다. 수업주제만 다를 뿐이고 늘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니 나도 신이 나서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학습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로 연구대회에 나가 우수상도 수상하게 되었고, 수업실기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더욱 수업연구에 가속도를 높였습니다. 때마침 좋은수업만들기, 수업인증제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경기도교육청 주관 연구대회가 만들어졌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좋아하는 제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제 기억으론 해마다 거르지 않고 연구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이 쌓여 저는 교감이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활동을 좋아했던 터라 부천교육지원청 발명공작실 발명강사로 몇 해동안 활동하면서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을 전개하였고, 결국은 발명공작실이 있는 학교로 옮겨 발명연구학교 연구부장으로 발명활동에 심취했었습니다. 2006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만든 체험학습장 프로그램에 발명체험학습장 운영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운영하였습니다. 가족단위 대상으로 운영하였는데 주말에 찾아오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발명창의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신문 등에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몇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발명연구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한 해는 특히 수업 공개를 5회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시흥 전체 선생님과 시흥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님, 장학사님을 모시고 수업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수업 후 수업 나눔 시간에 어떤 교사가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수학 1차시 단원을 수업하셨는데, 대부분은 수업 공개차시를 1차시를 하지 않는데, 특별히 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진도가 1차시라서 진도에 맞춰 1차시 수업을 했다는 싱거운 답변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수업을 보여줄 때 수업자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수업으로 의식을 안할 수는 없지만 그 때도 저는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수업을 계획했기 때문에 어느 차시라도 상관없었습니다.

2010년, 파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에서의 5년 근무는 나의 교직생활에서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온통 아이들에게만 빠져있던 저를 교육공동체 학부모님께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모참여활동, 학부모선도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교육감,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기자들이 찾아와 신문기사에 보도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 교육공동체 동아리활동으로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노래동아리, 댄스동아리, 기타동아리 등의 음악동아리 활동이 소문나면서 경기도교육청주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의 행사시 초청되어 특별출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토요선생님은 우리 엄마! 프로그램은 지금도 가끔 운영내용을 문의받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들 건의하세요!"

"전달식 회의 지양! 민주적 토론문화형성! 외치고 있는데,
왜 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시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

얼마 전에 학년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했던 말입니다. ○○○○동에 위치한 ○○초에 근무하다가 2018.9.1.자로 ○○○○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초는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나, 혁신공감학교나 4대혁신과제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은 다름이 없는데도 본교는 많이 침체 되고 혁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계에서 전달할 내용을 전하고, 다음은 교무부장님 말씀, 그 다음은 교감선생님 말씀,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수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권위를 벗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학교운명을 학교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함께 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의 주제로 정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에 의견이 있을 때 교감도, 교장도 동참하여 이야기하면 되지 특별히 말하는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회의 진행하지 말고 필요하면 한 달에 여러 차례, 필요 없으면 한 학기에 한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건의하였습니다. 학교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 의견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부천의 ○○초 교감으로 있을 때, 음악이 흐르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예술문화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2017 부천시교육경비 교육복지우선지원(햇살나눔) 사업추진 대상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드림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운영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있는 숨겨진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성취감, 자아 존중감 고취 및 음악과 함께 정서적 안정을 꾀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마다 바이올린 및 플루트 연주 기능을 익히게 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지도교사와 교감이 근무하면서 학생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나

2018.3.1.자 혁신학교 지정

-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비전과 '깊은 생각, 넓은 마음, 큰 꿈을 가진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전략을 갖고 2014 혁신학교준비교, 2015~2016 혁신공감학교 및 부천시 미래학교를 운영하면서 준비하였던 혁신학교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

교육배려학생을 위한 해오름공부방 운영

- 타고난 문제아는 아무도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원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또는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어진, 친구들이 나를 불량하고 문제아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생각하는, 교육배려학생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 더 나아가 마을교육공동체와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해오름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해오름공부방 수업은 시간표를 편성하여 교장(수학), 교감(독서논술토론), 희망교사(생활영어), 희망교사(실용음악), 학부모 및 지역인적자원 교육기부(창의활동)활동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하나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위한 노력

-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비전을 세우기 위하여 교직원 워크숍 및 토론회, 학년군별 소모임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분임토의를 거쳐 분임별 발표를 통한 전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년별 학부모 다모임을 통하여 학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민주적 학교문화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업무 최소화해 힘썼으며 교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업무조직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년군별로 업무를 조직 하여 협업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

윤리적 생활공동체 구현

- 전교원의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회복적생활교육연수를 주선하여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회복적서클 등의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존중어 사용하기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에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다양한 문제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상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래 조정 및 사과와 화해의 애플데이 운영, 저학년과 고학년을 매칭하여 의형제 맺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찾아가고 찾아오는 협력수업을 전개함으로써 선후배간에 화목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여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 전교 학생자치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아침조회 및 학교행사를 전교 학생자치회주관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 훈화말씀 대신에 학교 안팎의 칭찬거리, 문제점을 취재 및 녹화하여 방송 송출하고 서로 공감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습니다.

하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

- 학년군별로 학습공동체 연구회를 조직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직무연수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수업계획을 하거나, 학년별 공동수업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중심, 자기 생각 만들기 배움중심수업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수업나눔 시간을 통해 수업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수업성장의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수업혁신을 도모하였고, 교육과정 세미나 및 정기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나

창의적교육과정 운영 지원

-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내교하여 일과중 문화예술공연, 방과후 중국어 교육 및 창의체험 활동 등을 전개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 과학 실험 부스 체험활동, 지역 시설 활용 체육수업 전개, 6학년 교과전담제 실시 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한무릎 공부방 운영, 교육배려학생을 위한 해오름 공부방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3.1.자 교감 발령을 받고 ○○○○초에서 두 번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료교원평가결과 두 번 모두 만점인 5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은 고작 선생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속상해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선생님들의 나에 대한 마음이 이렇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감이 되어 현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교장선생님은 저의 멘토이시며 롤모델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 학교는 존재하는 것이고, 교직원 및 학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학교의 주인공은 학생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안전저해요소를 발견 즉시 해결을 하셨습니다. 늘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교직원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온정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훌륭하셨고, 지시나 통제보다는 몸소 운동장 잡초 제거, 스탠드 및 교실벽면 도색 등 심지어는 시멘트 바닥을 뚫어 팬스 설치까지 아이들의 안전과 교직원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저도 ○○○ 교장선생님을 닮고 싶습니다.

계수 교육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전하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여 학교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 학생중심, 학생주도적 교육과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 나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 바쁘다는 핑계로 기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겠습니다.
-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 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결정한 일에 대하여 번복은 삼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 필요할 때마다 학교구성원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계수 교육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사람을 귀히 여기며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대하겠습니다.

계수초의 교육비전 및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계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해봅니다.